

김홍호
칼럼

삶의 핵심에 이른 사람들 ⑦

천지의 자각점(自覺點)

| 김홍호 |

세상 밖의 살아있는 한 점이 되어 세상을 움직이려한 송학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을
맛본다(편집자 주).



송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주자(周子)나 장자나 정자나 소자나 주자(朱子)나 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초월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본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글 잘하고 똑똑했으며,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그 당시 요긴한 자리의 관리가 된 사대부의 계급이었다. 사대부란, 요즘 말로 지식 계급이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 계급이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다. 그들만 정신을 바로 차리면 세상을 능히 바로잡을 수 있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교의 경전을 읽는 동안에 공자의 웅대한 천인합일의 사상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들도 땅에서 뚝 떠나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천지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끊어졌던 성인의 도를 잇고 영원히 인류를 잘 살게 해주고 싶은 정열이 넘쳐흘렀다. 송학이란, 이러한 사대부의 부풀어 오른 의식과 교양을 이론화하고 조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명도라는 사람도 세상에서 초연한 연꽃 같은 사람이었다. 언젠가 궁궐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져서 정명도는 그 동생과 같이 잔치에 참석하였다. 술이 나오고 어여쁜 아가씨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 모두 꽃 같고 선녀 같은 여인들이었다. 동생은 지금까지 닦아온 자기의 수양이 모두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공자님의 ‘예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가르침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을 수습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한동안 애를 쓴 다음 그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고투하고 있을 자기 형인 정명도를 생각하고 눈을 뜨고 형이 앉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동생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형은 갓 끈이 풀리고 얼

굴이 붉어진 채 꽃다운 아가씨와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흥에 겨워있었다. 동생은 극도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십년 닦은 형의 도가 오늘 그만 깨진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그날 정명도는 정신없이 대취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동생은 어제 일을 생각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더욱이 자기보다도 형의 태도가 더욱 기가 막혔다. 도를 닦는 선비가 여인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술에 만취하다니 말도 안 될 일이었다. 동생은 기가 막힌 듯 앞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선비가 오랜 세월 도를 닦아도 하룻밤에 그것이 깨져버리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는단 말인가 하고 깊은 근심에 쌓여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형님 방에서 나오는 소리요, 형님의 목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동생은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다. 공자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어젯밤에는 술을 마시고 오늘은 같은 입으로 성현의 말씀을 읽다니 아무리 형님이라도 너무한단 싶어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 방으로 가서 어제의 추태를 문책하였다. 형은 웃으며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놀이터를 글방까지 끌고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보니 정명도의 마음에는 어젯밤의 모습이 간 데가 없었다. 어제는 어제로 끝이 났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명도의 마음에는 어제와 오늘이 끊어져 있었다. 몸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의 마음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술좌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젯밤에 술에 취하여 여인들과 춤을 추던 명도의 마음에는 어제는 어제요, 오늘은 오늘이었다. 명도의 마음에는 마치 진흙에서 나온 연꽃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이 있었다.

송나라 초기에 나왔던 도학자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천명에 살

고 천명을 다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천자(天子)라고 한다. 옛날엔 임금을 천자라고 하였다. 임금이야말로 백성들이 잘살 수 있도록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가 타락하고 세습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임금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임금을 천자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임금을 대신하여 진짜 백성들을 살리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늘의 아들이다.

당시 사람들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보았다. 그것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주공, 공자였다. 이러한 계통을 그때 사람들은 도통(道統)이라고 했다. 공자 이후에 맹자가 도를 잇고 순자가 도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동안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도가 끊어졌던 것이다. 송나라 선비들은 이것을 무척 서글프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사람들을 살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聖人)이라고 하고 누구나 공부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송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실지로 성인이 된 사람들이 주염계요, 정명도요, 주희요, 그밖에 여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끊어졌던 도가 계승되어 도통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학의 제일 특징은 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정통이란, 불교나 노장의 생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요순의 고유한 전통을 따라 공자의 생각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석가나 노자가 민중들에게 훨씬 높이 평가되었고 공자나 맹자보다는 공자나 맹자를 연구하는 정현(鄭玄)이나 복건(服虔)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게 생각되었다. 이러한 때 쓰러졌던 사당 속에서 위패를 찾아내는 자손들처럼 자기의 정신적인 전통을 찾아서 공맹을 내세우고 무엇보다도 외세에 짓밟혔던 자기들의 주체의식을 되찾으려고 있는 힘을 다한 것이 이 사

람들의 충정이었다. 이 사람들이 특히 불교도와 도가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의 철저한 현실주의였다.

불가나 도가가 가정을 무시하고 국가를 내버린데 대하여 이들은 어디까지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그들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불교의 반인륜과 도교의 반문명에 반기를 들고 인륜과 문명으로 집안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빛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명의 숭상이 송학의 두 번째 특징이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보다 송학의 제일가는 특징은 사색이었다. 쓸데없이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다만 한 가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파고 들어가기를 좋아한 것이다. 정명도 같은 사람도 쓸데없는 암기나 지식의 축적을 극히 삼가고 자기 생각의 중심을 잡아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생각을 맨 처음 학문적으로 내놓은 이가 주자(周子 1017~1073)다. 이름은 돈이요, 호는 염계(廉溪)다. 호남 사람으로 지방의 과장 정도를 역임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맹자 이후 일천사백 년 동안 끊어졌던 도의 간격을 메운 사람이다. 그에게는 유명한 「태극도설」이라는 글이 있다. 첫머리가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란 말로 시작되는 짧은 글이다. 무극은 기(氣)요, 태극은 이(理)다. 이와 기가 종합되고 지와 행이 일치하는 자리다. 주염계는 동양의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다. 이 우주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설 자리를 확실히 정해놓고 내가 섰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무극이태극’이라는 말이다.

송나라 선비들은 생각하고 깨닫는 데 생명을 걸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영특한 것이 인간임을 자각하였다. 일단 자기의 본체를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그저 풀린다. 이와 같이 깨

닫는 경지를 그들은 ‘정(靜)’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인간은 깨달을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대답한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정신통일, 이것만이 깨닫는 비결이다. 어떻게 하면 정신을 통일할 수 있나. 이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것이다. 무욕, 이것이 그 비결이다(聖可學乎 曰可 有要乎 曰有 請聞焉 曰一爲要一者 無欲也). 일단 이 세상을 끊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밖에 하나의 설자리를 찾은 후 거기에서 지렛대를 대고 이 세상을 움직여보자는 것이 이와 거의 철학이다. 이란 세상 밖에 있는 점ियो, 기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옛날 아르키메데스가 “지구 밖에 한 받침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그 말이 송학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태극은 세상 밖의 점ियो, 무극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해도 좋다.

정성(定性)

송나라 선비들은 꿈이 컸다. 예를 들면 군자가 되겠다든가 현인이 되겠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은 성인이 되려고 하였다. 그것은 불교의 성불사상의 영향이 컸는지도 모른다. 공자 같은 사람도 성인이 되겠다고 꿈을 꾸지 못하고 고작 믿음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이다. 자기의 할 일만 꾸준히 하고 낮은 관리의 자리에서 차차 높은 벼슬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견해를 넓혀간 것이다.

그런데 송나라 선비들은 사회적인 수련에서부터 인생의 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곧장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이

되고 하늘의 해가 되고 하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이 사색이라는 것이다. 마치 계란이 어미 닭 품에 안겨 21일 만에 병아리가 되듯이 깨면 병아리요, 못 깨면 계란이지, 그 중간 단계는 없다. 군자가 됐다가 현인이 됐다가 또 수양을 해서 성인이 된다는, 높은 산에 오르는 식의 수도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느껴진 것이다. 아무리 산꼭대기에 올라섰다 한들 그것은 역시 땅 위지, 하늘은 아니다. 하늘은 역시 땅 위 한 치도 하늘이요, 땅은 팔천팔백 미터를 넘는 에베레스트 산꼭대기도 땅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아예 조금씩 조금씩 수양해 올라가는 도덕적인 수양을 하지 않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직관의 길을 택했다.

주염계의 무극이태극이라든지, 소강절의 이물관물(以物觀物)이 모두 직관을 그 방법으로 한다. 누구나 정신을 통일하고 마음만 모으면 직관할 수가 있다. 성인이란 별것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이요, 욕심 없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율법에 시달리다 복음으로 그저 구원을 받듯이 행을 통하여 성인될 가망을 잃었던 사람이 직관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송나라 성리학의 근본 특징이다.

성인은 본래 몇 천 년에 한 사람이 나올까말까 하는 것이지, 아무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랜 전통이 송나라 때에 와서 일조에 무 지고, 아무나 하기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솟어나게 된 것이다. 마치 연금술에서 화학이 나오듯이 종교적인 중세에서 철학적인 근세가 시작된 것이 송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새 시대의 물결을 타고 누구나 될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어놓은 것이 성리학이다.

주염계의 제자 정이천 같은 이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데, 성인

은 아무나 못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정이천의 형 정명도는 '누구나 성인이 되어야지, 그 이하의 것으로 만족하면 안된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장횡거 같은 이도 '현인이 되기를 바라고 성인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진한(秦漢) 이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자나 현인은 될 수 있으나 성인은 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사상이 깨져버리고 성인이야말로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쉬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런 경지를 확연대공(廓然大公)이라고 한다. 확연대공이란, 확 뚫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막혔던 독이 터져 나가듯 확 뚫린 시원한 시대가 온 것이다.

장횡거가 한때 새 길이 이해되지 않아 정명도에게 새 길을 물었다. 정명도는 「정성서(定性書)」라는 유명한 글을 써서 마치 경부간 고속도로가 확 뚫리듯 새 길이 확 뚫린 것을 알려주었다. 그때 쓴 말이 확연대공이란 말이다. 「정성서」의 알짬은 '확연대공(廓然大公) 물래순응(物來順應)'이란 말이다. 확 뚫리면 택시건 트럭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성이란 말은 정신통일이란 말이요, 직관이란 말이요, 확 뚫린다는 말이다. 장횡거가 그것이 가능한가고 물을 때에 가능 여부가 아니라 이미 뚫린 지가 오래됐다고 대답한다. 하기가 주염계가 '무극이태극'할 때 벌써 새 길이 뚫린 것이다. 마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있다."고 고함지를 때 근세가 열렸듯이 주염계가 '무극이태극'이라고 큰 소리칠 때 확연대공, 새 길이 열린 것이다.

중국의 근세는 주염계와 같이 열렸다. 해가 떠서 밝아졌는데 아직 해 뜬 줄을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처럼 잠을 못 깨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깨라고 소리 지른다. 깨면 된다. 깨면 보인다. 이것이 성리학의 새로운

외침이다. 해는 떴다. 눈만 떠라. 이제부터 수양이니 수도니 해서 되자는 것이 아니다. 벌써 다 되어 있다. 된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확연대공이란 말이다. 결국 새 시대는 오고 만 것이다. 정명도는 주역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온 것을 알았고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정성이요, 정신통일이요, 직관이다.

정명도는 그의 동생 정이천과 더불어 흔히 이정(二程)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본래 낙양 사람으로 26세에 과거 급제하여 진사가 되고 나중에는 도지사도 지내고 중앙 정부의 고급관리도 된다. 혁신사상을 가졌다는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신임을 받아 어전 강의를 맡게 되었다. 명도는 정성을 모아 왕도의 이상을 구현할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하였지만 혁신사상을 가졌다는 신종이 아직 새 길이 열렸음을 깨닫지 못하고 왕도정치는 요순 같은 성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범인이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꾸겠느냐고 사양하자 명도는 언성을 높여 폐하의 이말은 천하를 위하여 이로움이 못 된다고 충정을 털어놓았다.

정명도는 본래 타고나기를 부드럽게 타고난 사람이다. 평생 화난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는 명도도 왕도정치를 사양하는 신종에 대해서는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제 군주시대에 제왕의 어리석음은 백성들의 피로써만 보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도의 부드러움은 언제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명도는 이러한 마음을 주역계사(周易繫辭)의 ‘천지의 마음’에 해당한다고 하여 ‘살리고 살리는 것(生生)’을 그의 사상의 근본으로 하였다. 그는 철인정치를 주장하여 왕도정치의 이상으로 삼았다.

생생이야말로 명도의 우주관이다. 그는 생생하는 만물을 통해서 대주재자의 원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서재의 앞뜰에 자란 잡

초도 뽑지 못하게 하였다. 나중에는 잡초가 길을 덮게 되자 어느 날 친구가 잡초를 뽑아낼 것을 권유하였으나 명도는 조물주의 생의(生意)를 보고 싶으니 그대로 두라고 하여 결국은 계단까지도 가리게 되었다고 한다. 명도에게는 천지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하나같이 모든 만물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의 깊은 뜻이 있다. 천지의 마음은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내버릴 것이 없다. 일체가 하나로 통일된 유기체와 같다. 만일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라도 다친다면 그것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다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몸 가운데 어디를 다쳐도 아프듯 만물 중의 어디를 다쳐도 아프게 느끼는 것이 천지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명도는 만물 일체(萬物一體)의 인(仁) 또는 천지일체의 인이라고 한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꺾여가는 갈대도 꺾지 않는 심정, 그것이 만물 일체의 인이다.

명도에게는 『주역』의 생생이 천지의 마음이요, 그것이 만물 일체의 인이다. 만물이 다친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이요, 불인지심(不忍之心)이다. 이러한 세계는 일체가 평등이다. 큰아들 작은아들에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없듯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차별할 수가 없는 심경이다.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요, 그 가운데 아무런 차별도 없다. 사람만 영적인 것이 아니다. 만물이 모두 영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만물은 같은 동포요, 서로 사귀고 통할 수가 있는 사이이다. 사람과 자연이 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신도 통할 수가 있다. 신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입장에서 보면 일체가 통할 수 있는 세계이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없어 텅 비게만 되면 영기로 가득 차 자연과도 통하고 신과도 통하는 허령지각(虛

靈知 의 경지가 열리게 된다. 이런 세계가 성인의 경지이다.

성인이란 만물 일체의 인을 체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란 만물 일체의 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허령지각을 가진 사람이 산 사람이다. 살았다는 말은 영적이란 말이나 마찬가지다. 생명이란 영이요, 영이 생명이다. 인생의 목적이 사는 것이다. 만물 일체의 인을 느끼고 허령지각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만 맹자의 ‘만물이 나에게 갖추어 있다(萬物皆備於我)’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아 진리에 어긋남이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그들, 결국 생명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요, 즐거움의 세계요, 자족의 세계이다. 그밖에 아무것도 더 있을 필요가 없다. 명도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고 하던 부분적인 인을 내버리고 천지일체의 근본인 실재를 인이라고 하게 된다. 명도는 전통적인 인의 개념을 내버리고 우주 최고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인을 새롭게 해석한다. 정도의 인은 인의 예지의 인이 아니고 의나 예나 지나 신을 통일하는 인이다. 인이 전부요, 의예지신은 그 부분이라고나 할까. 부분지(部分智)를 초월한 전체지(全體智), 이것이 허령지각이요, 만물일체의 인을 느끼는 영지(靈智)이다.

여기서 송나라의 선비들은 생생을 느끼는 인간의 지각을 성(性)이라고 했다. 성이란 생심(生心)이요, 산 정신이다. 모든 만물이 모두 인임에 틀림이 없으나 사람과 만물의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인임을 자각할 수 있는 지각을 가졌다는 것이 다른 만물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한없이 고귀한 점이다. 인간은 천지의 자각점이요, 천지의 마음이다. 사람은 천지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천지는 사람이 없으면 알(靈)

수가 없다. 사람은 천지와 같을 만큼 존귀하다. 이런 생각을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라고 한다. 천지를 편안케 하고 만물의 화육을 돕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만물을 지배하거나 학대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천지의 마음으로 만물을 화육해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러한 자각, 이것이 성(性)이다. 이 성을 맹자는 ‘양지양능(良智良能)’이라고 하고 중용에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고 하였다. 성은 허령지각이다. 인간은 단순히 영적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자각하는 영적 지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각이 없으면 천지의 이법을 알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적 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

- 이 글은 ‘생각 없는 생각’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네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도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 추천도서 | 마음에 닿은 책

생각 없는 생각

김흥호 저 | 도서출판 솔 | 9,000원

종교철학과 교수를 지낸 저자의 산문집. 70.11월부터 82.10월까지 월간 〈사색〉에 실렸던 글과 친 일기를 모아 엮었다. 종교적 실존, 무극이태극, 성즉리, 꿈 등 37편의 글과 70년부터 82년까지의 짧은 일기글을 수록했다.

